# 닭고기 수출대책협의회 신임 협의회장에 김강식씨 추대

닭고기 수출대책협의회는 지난 7일 정기 실무위원 회의를 갖고 신임회장에 김강식(육류수출입협회장)씨를 추대했다.

이상진(축기연 대전지원장)회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회장직을 고사, 신임회장에 추대된 김강식 협의회장은 수락인사를 통해 『그동안 육류수출입협회를 이끌어 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닭고기 수출에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닭고기 수출대책협의회가 계육산업과 관련된 민 · 관이 연계돼 만들어진 조직인 만큼 닭고기 수출이라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신임 김회장은 『닭고기 수출을 위해서는 왜 닭고기를 수출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큰 대의를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는 결단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며 소신을 피력했다. 이어 계속된 각 반별 연구과제 발표에서는 한국계육협회 정진성 상무의 「닭고기 포장 유통 의무화 방안」과 수의과학검역원 모인필 박사의「국내 뉴캣슬병 발생현황 및 향후방역대책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편 차기 수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는 내달 27일 전북 익산 (주)하림에서 개최키로 잠정 결정됐다.

## 원산지 둔갑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헌목)은 값싼 수입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하여 형사입건 수사중이거나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 17일까지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총 1,040개소를 적발하여 이중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474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66개소에 대해서는 6천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닭고기 원산지 둔갑판매업소의 적발이 상당수 이루어져 품질관리원 호남지원에서는 지난 4월 17일 여수시 선원동 소재 ㅎ 유통센타를 단속하여 미국산 닭고기 1,110kg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 수사중에 있으며 강원지원 원주출장소는 강원시 원주읍 문막읍 소재 ㅁ 닭 공판장을 단속하여 수입산 닭고기 3000kg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적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법경찰관을 325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강화시켜 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정유통사례를 발견하면 가까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본원 · 지원 또는 시 · 군 출장소에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최하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전화 0343) 446-6060, 449-6060

## 육계질병 세미나 성료

뉴캣슬병, 감보로 등 소모성 질병의 만연으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육계사육농가를 돕기위한 육계질병 세미나가 우리 협회 주최로 지난 5월 18, 19일 양일간에 걸쳐 경기 분당과 대전 유성에서 각각 개최됐다.

육계사육농가를 비롯 업계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조류질병 및 발생동향(수의과학검역원 모인필 박사) △국내 뉴캣슬병 생독백신 접종효능 개선방향(수의과학검역원 송창선 박사) △사양관리 방법중에서 개선되어야할 육추 준비에 대하여(하림 이종길 사육담당이사)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특히 주제발표이후 가진 토론회에서 농가들은 현재 1차 백신접종에 한해 지원되고 있는 관급백신을 2차 백신분까지 확대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뉴캣슬병 발생시 농가들이 피해를 우려, 질병발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가가 안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협회는 세미나 참가 농가들의 의견 및 요청사항을 모아, 정책당국에 건의했으며 2차 백신 관급공급을 내년부터 시행토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 뉴캣슬병의 최근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

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 모인필 박사

뉴캣슬병은 닭, 꿩, 메추리 등에서 발생하는 급성전염병으로 소화기, 호흡기 및 신경증상을 일으키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닭에 감염시 100% 폐사를 하는 질병이다.

병원성의 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는데 병원성이 낮은 약독주, 감염되면 체중감소나 산란율 감소를 유발하는 중간독주, 감염시 100% 폐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임상증상에 따라 아페리카형과 아시아형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다발하는 것은 아시아형으로 병원성이 높은 강독주 이다.

뉴캣슬병은 전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방약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늦가을부터 봄까지 많이 발생을 하나 그중에 4월~5월에 가장 심하게 발생한다.

지난 98년도의 경우 14건, 99년도는 17건이 연간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으나 올해의 경우 5월까지 27건(35만여수)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육계가 1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10개 농장에서 50% 이상의 폐사율을 나타냈다.

이같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첫째, 예방약 접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방약 접종율 : 2회접종기준 50%미만)

지난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접종률을 비교하면 연도별 차이가 없으나 뉴캣슬병의 유행주기에 도달되면 전체적으로 예방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폭발적으로 발생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2회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99년의 경우 2회접종이 13%, 1회접종이 52%, 미접종이 35%로 1회이하 접종이 87%차지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2회접종이 26.5%, 1회접종이 47%, 미접종이 26.5%로 1회이하 접종이 73.5%에 달해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예방접종프로그램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5월 까지 뉴캣슬병 비발생농장 49개소, 발생농장 15개소, 총 64개소 농장을 대상으로 예방접종프로그램을 비교해본 결과 부화장에서의 분무접종율은 33%로 매우저조하였으며, 예방약을 2회이상 접종한 경우라도 적절한 시기와 방법에 의한 것은 20%에 불과하였다.

셋째, 뉴캣슬병 발생농가에서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예방약 미접종 농가에서 발생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되어 있으며 뉴캣슬병 발생신고시 이동제한 등 방역기관의 행정조치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이에따른 충분한 보상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넷째, 부화장에서 분무예방약의 접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먼저 자동분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화장에서는 관급예방약을 분무접종하지 않고 농가에 직접 불출하며 농가에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하게 된다. 또한, 분무접종시 난계대질병에 감염된 약한 병아리의 폐사율 증가 및 증체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분무접종후 부적절한 보온관리와 차량운송으로 이동중 스트레스로 폐사율이 증가할 수 있기때문이며, 분무접종시스템 도입시 부화장에 1~2명의 추가인력이 소요되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전국 뉴캣슬병 발생 양계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전국 부화장 뉴캣슬병 분무예방접종 실시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이외에 전국 닭 도축장 및 소독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뉴캣슬병 예방접종법 개선방안에 대한 홍보, 전국 육계 및 산란계 농가에 대한 질병교육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뉴캣슬병 예방약 약사감시를 실시해야 하며 살처분에 따른 현실적인 농가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1. 최근 뉴캣슬병 발생현황 비교

(단위 : 건수)

| 년도 \ 월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계 |
|---|---|---|---|---|---|---|---|---|---|---|---|---|---|
| '98 | -<br>- | 1<br>(2,000) | 1<br>(200) | 3<br>(19,135) | | 1<br>(8) | 1<br>(980) | 1<br>(150) | 1<br>(300) | 2<br>(11,000) | 1<br>(2,000) | 2<br>(400) | 14<br>(36,173) |
| '99<br>발생지역 | - | - | - | 5<br>(41,170)<br>충남북, 전남북 | 9<br>(347,100)<br>충남북, 전남 | - | - | - | - | - | - | 15,500 | 16<br>(433,770) |
| 2000<br>(5.23현재)<br>발생지역 | | 2<br>(13,200)<br>전북,<br>충남 | 1<br>(3,000)<br>전북 | 9<br>(137,800)<br>경기, 충남북,<br>경북, 대구 | 16<br>(194,024)<br>경기, 인천, 전북, 충북, 충남, 강원, 경북 | | | | | | | | 27<br>(345,024) |

# 캐나다 닭고기 산업의 공급관리제도

캐나다의 축산 정책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공급관리제도」이다.

공급관리제도란 국내 수요분에 균형을 이루는 출하 수량을 설정하고 이를 각 주별 마켓팅 기관을 통하여 생산자마다 할당하여 시장의 공급량을 관리하고 합리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도 관세할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공급관리제도는 지난 60년대 초 지속적인 닭고기 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급불균형에 의한 가격 변동의 심화로 생산자의 경영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었으며 각 주별 경쟁심화와 경쟁력 우위를 가진 미국에서의 공급증가 등 대내외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되기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지난 78년에 설립된 캐나다 닭고기 생산자 협회(Chicken Farmers of Canada : CFC)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CFC는 이 외에 소비확대활동, 농가단계에서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련된 활동을 한다.

운영 절차를 보면 우선 각 주의 마켓팅 기관은 8주간 마다(연간 약 6회전) 닭고기 가공처리업자로부터 해당 기간의 예측 수요량을, 생산자로부터는 생산가능 수량을 취합하여 CFC에 신청한다. CFC는 각주의 신청을 종합한 후 조정을 거쳐 총 할당수량을 설정하는데 과거의 주마다의 실적, 시장동향 등을 감안하여 각주에 배분한다. 각주의 마케팅 기관은 배분된 수량을 과거의 실적 등에 기초해 각 생산자에 배분한다.

생산자는 할당된 수량을 가공처리공장에 출하하는데 배분량을 넘는 생산을 할 경우 벌금 등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가격은 각 주의 마케팅 기관이 시장동향, 생산비용, 각 주의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가공처리업자 단체와 교섭에 의해 결정한다.

이같은 공급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국내생산량 외에 수입에 대해 수입억제차원에서 관세할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닭고기의 수입제도에 대해여는 GATT, UR 합의 등에 의해 관세할당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관세할당수량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정해졌던 해당년의 전년도 국내 생산량의 7.5%가 적용되고 있다.

관세율은 관세할당수량내의 수입량에 대하여는 수입가액의 5%, 이것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하여는 수입가액의 249%로 수입금지적인 고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참고적으로, 캐나다의 닭고기 생산량은 지난 89년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98년도는 전년대비 6%가 증가한 79만톤으로 10년전에 비해 50%가 증가하였다.

지난 98년도 닭고기 수출량은 5만8천여톤으로 이중 52%가 쿠바로, 14%는 러시아로, 13%는 중국으로 각각 수출이 되었으며, 수입은 6만9천여톤으로 대부분이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1인당 소비량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건강지향, 다양한 요리법, 외식수요의 증가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전년대비 3% 증가한 26.1kg으로 10년전에 비해 20% 정도 증가했다. 이중 외식을 통해 43%, 반찬 · 가공품을 포함한 소매점 구입이 57%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본회도 대표단을 구성, 오는 8월에 캐나다를 방문, 닭고기 산업을 시찰할 예정이며, 국내에 도움이 될만한 좋은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일본 축산진흥사업단)

# 미국, 닭 심장병 예방 사육기술 개발

미 농무부 농업조사국(ARS) 과학자들은 가축생산자들에게 있어 매년 1억 달러의 손실을 유발하는 닭의 치명적 심장질환 복수증을 예방할 수 있는 사육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닭이 복수증에 걸리면 심장의 우심실이 확대되어 폐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죽는 질병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복수증은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ARS 연구팀은 아칸소주 대학과의 4년에 걸친 공동연구를 통해 인위적으로 고도를 높인 조건에서 복수증 발병이 20% 이하인 저항성이 강한 닭과 80% 이상인 복수증에 민감한 닭 계통을 선발하였다.

연구팀은 현재 복수증 억제를 위하여 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사망률을 낮추는 사료에 관하여 연구 중으로, 가축 생산자들은 적절한 사육온도를 유지하고 양계장의 환기를 주의하여 공기를 개선하면 이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USDA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News 2000년 5월 18일)

# 국내산 닭고기 소비촉진홍보 대대적으로 전개

협회는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 ,안전성 및 수입닭고기와의 차별화 홍보를 통한 닭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사업을 전개한다.

협회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뉴캣슬병 과대 언론보도 등으로 닭고기 소비가 감소, 육계산지가격이 생산비 이하에서 장기간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 닭고기의 수입이 가시화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대대적인 국내산 닭고기 홍보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닭고기 소비확대 및 외국산 닭고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주요 홍보내용은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 안전성과 함께 국내산 닭고기임을 인증하는 품질인증마크로,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동시 다발적인 광고전략을 구사한다.

협회는 우선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과 품질인증마크의 홍보를 위해 1만부의 포스터를 제작, 전국 배포에 착수했으며 지난 1일부터 라디오 광고(MBC 여성시대 양희은 김승현입니다)를 실시중이다.

또한, 이달 초순부터 수도권(서울)지역 버스외벽광고를 실시하며 여성전문잡지 광고를 게재키로 하는 등 닭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3년 전부터 지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닭고기 요리홍보카드를 금년에도 매월 10만매씩 제작, 대형백화점 20개소에 비치, 배포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 개최되는 2000우리축산물 브랜드전에도 적극 참여하여 닭고기도 브랜드시대임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같은 닭고기 소비 촉진 홍보 사업추진에 따르는 총 소요예산은 약 5억여원으로 전액 회원사 및 관련업체의 협찬금(자조금)으로 충당된다.

A. BUS광고(2000년. 6.10~12.10) ▼

B. 포스터광고(10,000부 제작 배포) ▼

C.잡지광고
-여성지, 월간잡지(7월~9월)▶

D. 라디오 광고(6월1일~11월30일)MBC 여성시대

주부여러분, 배한성입니다.
요즈음 닭고기 많이 드시죠.
닭고기는 신선하고 안전한, 국내산 닭고기가 제일이죠.
외식업소에 주문할때도 국내산인지 꼭 확인하시구요,
국내산 닭고기는 품질, 품질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젠 닭고기도 브랜드시대입니다.

한국계육협회

유기태 셀레늄
셀-플렉스 50
☞ 종계 부화율 향상 ☞ 육즙 손실 감소
☞ 계란의 신선도 유지 ☞ 육계 피모 개선
유 니 화 학 주 식 회 사
☎ (02)585-1801~5 Fax (02)584-2523

# 99년도 육계계열 생산비율 70%

농림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전국 닭도축량 및 본회 회원사의 도축량을 검토한 결과 전체 생산량 중 계열생산의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농림부에서 발표한 전국 닭 도축량은 3억7천2백80만수로 전국에 위치한 60개 닭 도축장에서 각 시 · 도를 통해 보고되어 집계된 것이다.

·한편 본회에서는 매년 회원사의 도축량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는데 본회 회원사 외에 지난해 10월부터 정상가동을 실시한 축협중앙회 음성공장과 전북양계조합, 충북양계조합 등 계열생산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장의 도축량을 검토한 결과 2억6천1백29만수로 전체의 70.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 회원사의 경우 하림의 9천1백72만여수(24.6%)를 비롯해 2억4천1백4만수로 전체의 64.7%를 차지하였으며 축협중앙회 음성공장에서 3백75만수로 1%, 전북양계조합에서 1천1백만수로 3%, 충북양계조합에서 5백50만수로 1.5%를 각각 차지했다. 이중 축협중앙회 음성공장의 경우 10월부터 정상가동하였기 때문에 3개월분의 물량만 집계된 것으로 올해의 경우에는 1천5백만수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도축량은 2억6천여만수이나 계열사육수수는 2억2천여만수로 약 4천여만수(15%정도)는 외부에서 생계로 구매하여 도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회 김홍국회장 김동근 차관 면담 계육업계 현안과제 전달

본회 김홍국회장은 지난 7일 농림부 김동근 차관을 면담, 협회 활동사항을 소개하는 한편 계육업계 당면 현안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회동에서 김회장은 매년 닭고기 수입량이 급증, 국내 육계 및 계육산업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밝히고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회장은 국내 육계사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수입닭고기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국내 유통닭고기에 대한 포장유통의무화 △도계장 HACCP 시행을 위한 항문제거기 설치 의무화 △계육협회의 축산자조금 사업자 지정 등을 요청했으며 최근 민•관이 주축이돼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닭고기 수출대책협의회에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망했다.

또한 닭고기 소비홍보사업과 관련 계육협회는 닭고기 소비 촉진 홍보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현재까지 약 31억원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성, 닭고기 소비확대에 크게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뿐만아니라 닭고기 소비확대 홍보에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협회측에서 본회 황인옥 상임고문, 정진성 상무 등이 배석했으며 정부측에는 김남철 축산경영과장, 이주호 가축위생과장 및 관계사무관들이 배석했었다.

## 메리알코리아(주), 사무실 이전

본회 준회원사인 메리알코리아가 업무효율화를 위해 지난 5월 27일자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변경된 사무실 주소와 전화, 팩스번호는 다음과 같다.

-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35번지 한독약품빌딩 8층(135-081)
- 전화 : 02) 554-0411 (수신자부담 : 080-755-1111)
- 팩스 : 02) 554-0410

* 이성희 대표이사 : 02) 554-9644
* 동희조 양계담당이사 : 02) 554-5027

## (주)하림, 닭고기 전문 복합 취급점 「하림 치킨 익스프레스」 전국 확대나서

(주)하림은(대표 김홍국) 지난해 상반기 전북 전주와 경기 여주에 개장, 시범운영에 들어갔던 「하림 치킨익스프레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힘입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하림 치킨익스프레스는 기존의 치킨 프랜차이즈와는 달리 패스트푸드점, 수퍼마켓 배달써비스, 단체급식제품 공급 등의 복합적 기능을 가진 체인점으로 하림이 생산한 햄버거 패티를 사용한 치킨버거, 생닭과 너겟 · 용가리치킨 · 하얀속살햄 등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고 배달서비스도 한다.

또한 인근 학교 등 단체급식장과 업소로부터 주문을 받아 전국 14개 하림 지점으로 연결해주는 대리점 역할도 담당한다.

지난 1일 서울 광진구에 체인본부를 설치한 하림 치킨 익스프레스는 연말까지 100개, 2~3년 안에 1,000개의 가맹점을 확보해 백화점과 할인점 식품매장으로 제한된 가공식품 판매망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가맹점 입지와 규모를 아파트 밀집지역, 역세권, 시장통 등의 10~20평형 점포로 잡고 있어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하림은 지난달 항암 · 면역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셀레늄 닭고기」, 전자레인지에 손쉽게 데워먹는 「미니 콘도그」를 출시한 데 이어 오는 9월께 당뇨 · 고혈압환자 등을 위한 기능성식품과 인삼 · 야채닭죽을 시판할 계획이다.

## 이번달 요리카드

*닭고기 땅콩소스 냉채*

품질 및 시설을 자랑하는 동우 닭고기
황금삼계 한마리가 보약(補藥) 한첩
황금닭이란?
국내산 닭고기로서 한방약재(漢方藥材)인 황금(黃芩)·석창포(石菖蒲)·의이인(薏苡仁)·창출(蒼朮)·방기(防己)·삼칠근(三七根) 그 외 4종의 약재가 첨가된 황금통(GOLDTON)을 먹고자란 깨끗하고 안전한 닭을 황금닭이라 합니다.
DONGWOO Chicken 동우1등급 닭고기 Tel:(0654)450-2000~4

화이트 미트의 시대!
KS닭고기회사 하림이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 (주) 하림 HALIM CO.,LTD.